

# 산업구조가 변화되면 빠른 적응력도 필요하다.

□ 정리/김동진 기자



▲김호섭(세화원중) 사장

나가야 할 시점에서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부실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도 하다.

'93년 한해가 시작되면서 양계산물 시세는 과히 나쁘지 않게 형성되어 닭의 해를 무난히 맞이하는 듯 했다. 그러나 '92년 과잉입색됐던 물량이 현실로 나타나 2, 3월에 들어서면서 계란값(50원/개), 육계값(700원/kg), 산란병아리(400~450원), 육계병아리(100~150원)등 양계산물 전체가 각각 생산비 이하를 밀들며 대공황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불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계·부화인들은 4

'89년 이후 만 이년동안 전례없던 호경기를 맞게된 중계·부화업은 '90년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불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92년부터 2년간 지속되어 온 중계·부화업의 어려움은 최근 몇몇 큰 업체들의 부도 사태와 끊이지 않고 나도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부도소문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우기 국제경쟁력을 키워

월말 사육중인 육계종계를 10% 이상 감축시키고 그 기간 내에 생산된 병아리를 사육처리함으로써 불황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육계 가격이 6월들어 큰폭으로 오르는 등 효과는 있었으나 일부 증견부화장들의 불참으로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비난들이 나돌면서 서로의 불신을 조장했고 2차계획으로 6월말 생산량 40% 감축을 위한 식란처리 계획을 세웠으나 육계값의 폭등과 일시적인 병아리값의 폭등으로 부화인들의 생산감축 호응도가 떨어져 서로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육계 병아리값의 변동폭이 커지고 산란계 병아리도 5월에 371원을 기록하며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아리 값이 낮게 형성되었다.

7월중 장작구이 선풍과 종란·사육란 처리로 닭값이 폭등하자 병아리 입식열기가 과열되어 종계노계값이 2,800원

의 높은 가격에도 종계노계도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조절은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이처럼 생산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종계장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생산비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의 양상을 보였다.

산란종계의 입식을 보면 1/4분기에는 171천수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가를 보여오다 2/4분기에는 159천수, 3/4분기에는 73천수로 각각 31.9%, 53.5% 감소추세를 보여 대체적으로 산란계 물량은 안정권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육용종계 입식을 보면 상반기에는 1,879천수로 지난해에 비해 17.8% 감소추세를 보이다 3/4분기에는 1,311천수로 25.6%의 증가를 보여 내년 경기에 과히 좋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월 이후 육계값이 생산비 이하를 밑돌자 종계·부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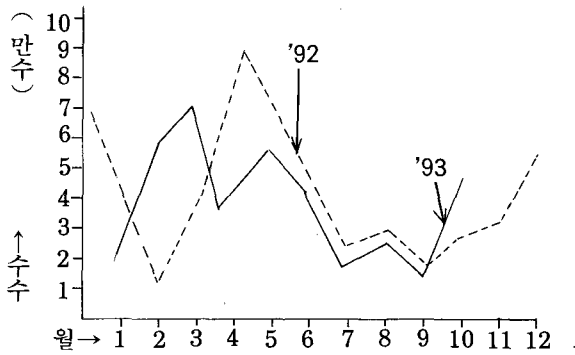
들은 이 불황이 2, 3월에 육용종계의 과잉입식으로 결론짓고 스스로 자율생산조절을 위해 주간육용종란 입란 및 병아리 판매수수를 30개 부화장을 대상으로 파악하여 참여업체에 알려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지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종계·부화업체가 불투명하다보니 향후 업계의 발전 방향을 잡아가야만 할 때란 맥락에서 종계·부화업의 최근 동향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기 위해 김호섭(세화원중) 사장을 만나 종계·부화업에 대해 계유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최근 종계·부화업계 동향에 대해 김사장은 2년간의 불황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보아 불황의 막바지에 온듯한 느낌이 들지만 업계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호경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장기간의

표1. 산란 실용계 병아리가격 및 계란가격

가 격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병아리 가 격	'92	640	653	675	691	694	679	674	673	633	540	449	369
	'93	422	429	416	391	371	381	442	482	514	468	564	
계 란 가 격	'92	653	673	821	747	617	513	573	576	648	543	549	587
	'93	604	473	522	499	636	460	520	573	643	500		



(그림1) 산란 P.S 입식현황

극심했던 불경기로 인해 종계·부화업계는 고리의 악성부채 발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생산비 중에서 금융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으며, 설상가상으로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관리부실의 유발로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가 확산되는 등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고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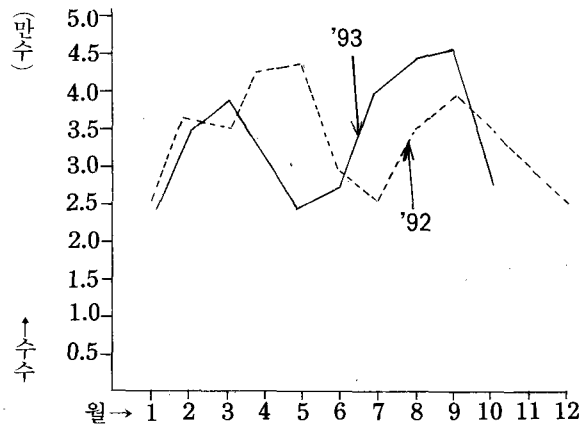
2년간의 불황이 찾아온 요인으로는 '92년과 '93년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92년에는 절대적 생산과잉, 금년은 상대적 생산과잉으로 보고있다. 즉 '91년까지의 호경기로 인해 '91년 육계·종계 입추

수수가 크게 증가하여 '92년에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경기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의 호황으로 인한 턱턱한 자금력,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생산감

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적 생산과잉'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93년의 불황은 생산감소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로 닭고기 소비가 위축된데 그 원인을 찾고 있어 '상대적 생산과잉'으로 분석했다.

사실 최근 10여년 동안 종계·부화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뒤따라야 하는데 육용종계 1수당 종란 생산수가 겨우 130개 정도이고



(그림2) 육계 P.S 입식현황

표2. 육계 실용계 병아리 판매가격 및 육계가격

가 격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병아리 가 격	'92	204	365	384	238	218	207	243	126	168	94	310	194
	'93	270	186	168	147	144	291	285	334	151	147		
육 계 가 격	'92	922	913	1,014	977	989	680	918	928	607	593	834	1,173
	'93	1,269	905	724	785	890	1,204	1,376	1,247	639	544		

병아리 생산수가 100수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육용종계 1수당 종란 생산수 150개 이상 병아리 생산수 125수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게 당면문제이며 이런 노력을 하는 업체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김사장이 장기불황에 있어서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는 생산을 꾸준하게 많이 했던 업체일 수록 적자 상태가 비례적으로 커져, 규모가 급격히 감축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로 건실하게 경영되던 업체들의 규모가 다소 증가되면서 그들업체가 상위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부화업계 생산저하로 서열의 재편현상을 예상하였다.

또, 최근 육계산업이 빠르게 계열화로 들어서고 있고 산란계 산업이 규모의 대형화로 변하면서 기존의 종계·부화업도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게 현실인데 같은 업체에서 산란계, 육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생산조절, 질병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1~2개에 불과한 산란용 병아리 부화전문

업체가 2~3개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측하였다.

금년 육용종계 예상입추 통계를 보면 380만수로 '9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었고 산란계의 경우 육계·산란계를 겸업하는 대형 기업체들이 불황에 의해 산란계 종계를 유지 내지 확대시킬 능력이 없어 생산량이 줄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준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육계의 경우 7, 8, 9월에 갑작스런 종계입식으로 봄과 여름에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사장이 보는 '94년 경기는 생산감소로 인한 호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계열화 업체들의 사업추진실적과 소비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의 지속기간은 낙관적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감을 비추기도 하였다.

이 불황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을지가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 병아리 수급조절만 가능하면 불황은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종계 부화업체수는 대

략 180여개로 그중에서 연중 계속 사업을 하는 업체는 150개 정도로 상위그룹 50~60개 업체의 대표만 모이면 수급조절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종계·부화인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번 몇차례 시도된 병아리 생산감축 사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남이 줄여줌으로써 자신은 이득을 보겠다는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종계·부화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진단도 하고 있다.

경기가 좋고 나쁨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다. 현 흐름으로 볼때 부화·종계업은 국제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실정이다. 김사장이 강조하듯 업자들끼리 '공생공존'이 종계·부화업의 살아갈 길이며 150여개에 달하는 업체끼리 담합이 아닌 적정생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서로 힘을 합한다면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변하면서 금년 한해의 부화·종계업을 정리하였다. **김기**